



농업 새로운
세계 양돈산업의 변화와 구조

일본 - 양돈농가 수 10,000호 이하 시대 돌입

한 나라의 양돈산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오류를 범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돈인들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까하여 원고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내용을 이해해 준다면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한다.

감소한 것이고, 2월에 비해서는 382호(4%) 감소한 것이다. 한편, 사육두수를 보면 모돈두수는 2001년 8월 1일 현재 911,974두로 전년도에 비해서 11,266두가 감소하였다.

위와같은 상황은 계속진행되어 양돈농가 9천호 이내의 시대로도 진입될 것으로 보인다.

2 양돈조직의 구조

가. 소규모 농사조합법인의 발달

양돈조직을 보면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지역적으로 5~6명의 양돈가가 모인 소규모의 농사조합법인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5-6명의 양돈가가 모여서 농사조합법인을 만들면 분뇨처

정 현 규 상무
 도드림양돈농협

1. 양돈농가수 10,000호 이하의 시대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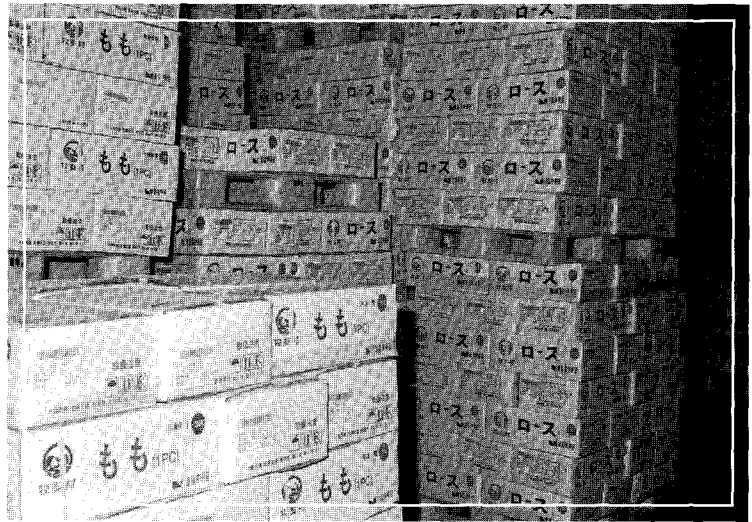
2001년 8월 1일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양돈농가수는 9,744호로 일본에서 최초로 1만호 이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같은 수치는 2000년 동월에 비해서 814호(8%)가

리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기때 문이기도 하며, 워낙 지역별로 브랜드육의 판매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농가의 모임이 브랜드육으로까지 발전한 곳이 200여 개가 넘는다.

농사조합법인으로 모인 농가들 모임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보면 공동 분뇨처리장 운영, 브랜드육 사업 이외에도 전문수의사와 계약하여 공동으로 기술지도를 받는 다든지, 공동으로 종돈을 구입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나. 규모화된 생산자가 유통까지

기업에서 하는 양돈이 아닌 생산에서 출발한 농장이 직접 가공,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사이따마현의 사이보꾸와 미에현에 있는 OK목장이다. 이들은 모두 농장의 규모를 키워 가다가 직접 육가공사업, 판매사업에까지 사업을 확장시켰다. 특징으로는 한 장소 즉, 본농장이 있는 한 곳에서 생산, 가공, 판매를 다 한다는 것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일본의 양돈조직을 보면 우리와 다르게 지역적으로 5-6명의 양돈가가 모인 소규모의 농사조합법인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다. 양돈가가 많이 모인 조합형태의 조직

우리의 조합과 비슷한 형태로 많은 농가가 모여서 공동구매, 기술조직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일본에서 선도적으로 양돈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피그파암(GPF)의 경우에 회원이 60여 농가로 특징적인 것은 가입부터 그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모든 회원은 종돈도 한 곳에서만 도입하여야 하고, 자체사료의 100% 사용, 회계는 복식부기 기장, 모든 농장 기록의 제출이 가입전부터 의무사항으로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회원에서 탈퇴를

해야 한다. 즉, 모든 사양관리를 통일시키켜서 브랜드육(GPF의 브랜드육은 모찌부 따)을 공동출하하여 만들고, 복식부기로 회계관리를 회원들은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상호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술팀 사무실로 매주 월요일에 농장기록을 팩스로 보내도록하여 회원들의 성적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조합과 비슷하지만 모든 면을 100% 통일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라.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한 양돈조직의 발전

양돈컨설턴트가 기술 서비

스뿐 아니라 자기 고객을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하여 여러 가지 사업 즉, 공동출하, 브랜드육의 개발까지 이어지는 조직을 만드는 예들이 있다.

마. 여성인력 중심으로의 이동

일본의 농장에 가보면 50%는 여성인력이다. 어떤 농장은 100% 여성으로만 구성된 농장도 있다. 농장 일이 점점 기계화되어 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성들의 세심함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남성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농장의 중심은 여성으로 이동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3. 새로운 양돈사업조합의 탄생

일본 양돈업계에서 기존의 농협 및 여러조직이 제대로 양돈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2000년부터 대규모 농장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양돈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최근의 일본 양돈업계의 변화를 가져

올 최대 변수 중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이 양돈사업조합은 현재 사료 공동구매, 인공수정관련 공동사업,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브랜드육의 개발, 효과적인 돼지백신의 개발 등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규모는 300명의 조합원과 이들이 보유한 모돈 10만두, 월간 사료 7,500톤 등이고, 공공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고, 향후 일본양돈의 중심조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4. 양돈 기술 관련

가. 기록철저

일본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모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 내용은 물론이고 농담까지 수첩에 적는 것을 자주보게 되는데, 농장에서 성적, 출하, 수입까지 모두를 전산으로든 노트에든 하나도 빠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농장을 방문해서 기록예기를 하면 역사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록이 돈버는 경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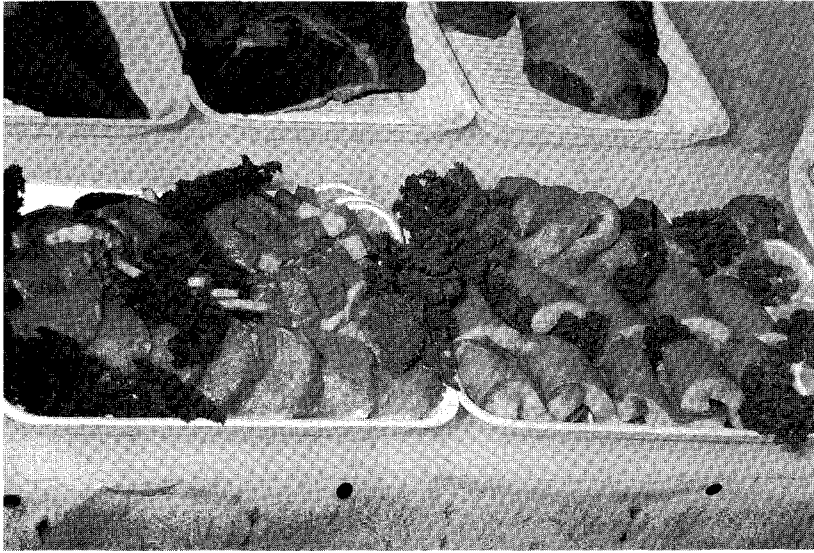
는 것 같다.

나. 육질관리

육질에 관한한 관심은 세계 최고라는 말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육질에 신경을 쓴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성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겠지만 성장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육질에 따라서 수입이 차이가 더나는 경우가 많다. 보리를 첨가한다든지 비육후기 처리를 철저히하여 육질 특히 시마리를 좋게하여 판매 단가를 높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다. 컨테이너 돈사의 이용

최근 일본에서는 자돈농장 전체를 컨테이너로 한다든지, 이유자돈 중에서 위축돈을 모아서 1주간 컨테이너 돈사에서 사육한다든지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돈 1000두이상의 농장이 자돈사를 전체 컨테이너 돈사로 하여 6년째 운영하는 농장도 있는데 70일령 체중이 30Kg이상, 자돈사 폐사율이 1%이내의 성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것은 올라왔한 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항상 새돈사처럼 이용이 가능하



▲일본의 양돈농가는 자신의 돼지고기를 소비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비단계까지 고기에 생산자의 사진을 넣는 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고, 환경관리가 확실히 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라. 농장까지 HACCP의 확대

도축장이나 육가공장뿐 아니라 농장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위생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한 고기를 생산하고,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농장에서도 HACCP관리를 적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단계까지 고기에 생산자의 사진을 넣는 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자신의 돼지고기는 소비까지 책임질 관리를 한다는 생각 말이다. HACCP의 일환으

로 지육에 주사침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사침이 잘 부러지지 않거나, 부러져도 돼지체내에 박혀버리지 않도록 하는 주사침도 사용하고 있다.

마. 양돈전문 컨설턴트의 활동과 소그룹 공부

대부분의 농장은 양돈전문가와 계약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는다. 돈도 잘 지불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어도 전문가를 잘 이용하는 점도 우리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돈전문가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은 농장은 서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을 연다. 일본에서는 어

는 지역에 가든지 5-10명이 모여서 저녁에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판매전문회사의 운영

사료, 약품, 기자재 등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운영된다. 특히 약품이나 사료의 경우에 판매주식회사에서 자기상표를 붙이고, 주문 생산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농장에 서비스도 이들 판매전문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메이커의 영업사원은 이들 판매전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만 움직이기도 한다.

6. 광우병 파동에 휩싸인 축산

작년 9월에 최초로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축산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소고기 소비량이 일부지역에서는 40~50%까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돈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광우병 파동은 일본 축산업계와 외식산업의 구조를 바꿔놓은 최대 원인이 되었다. **양돈**